

뉴 스페이스 시대 ‘신호탄’...우주 강국의 꿈 ‘성큼’



우주 향해 힘차게...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무게 516kg 주탑재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 12기 등 총 13기의 위성이 실렸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한국형발사체 나로우주센터서 우주로
차중위성3호 등 위성 13기 궤도 안착
우주청장 “차세대 발사체 개발 추진”
李대통령 “우주개발 역사 새 장 열어”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꿈’이 영글어 가고 있다. 민간 주도의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성공하며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관련기사 2·3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27일 오전 1시13분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했다. 당초 이날 오전 12시55분 발사 예정이었으나 엄벌리갈 회수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18분 지연됐다. 누리호는 이륙 후 122초째 1단 분리(고도 65.7km) 및 2단 점화, 230초째 페어링(위성보호 덮개) 분리(고도 211.1km), 263초째 2단 분리(고도 263km) 후 3단 점화까지 순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이어 741초째 고도 600.5km에 도착한 누리호는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쳐 790초째 고도 601.3km에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사출했다. 이어 20초 간격으로 부탑재 위성인 세종대·쿼터니언, 우주로테크·코스모웍스, 코스모웍스·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한컴인스페이스, 서울대·스페이스링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항우연 위성이 2개씩 순서대로 분리됐다. 위성 사출을 마친 누리호는 발사 후 1천106초째 비행을 종료했다. 이는 당초 예상 시간인 1천284초보다 179초가량 단축된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은 “1·2·3단 엔진 모두 설계값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전반적인 발사 시점이 예상보다 빨랐다”고 설명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주 임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목표 궤도인 태양동기궤도 내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각을 곧두세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27일 오전 1시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돼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체계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까지 참여해 거의 모든 업무를 맡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날 오전 2시40분께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윤영민 우주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3차 발사 이후 4차 발사까지 2년6개월 공백으로 산업 생태계 유지가 쉽지 않았다”며 “우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여러분이 열어야 할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서형우 기자

“무차별 외국인 단속...농촌 인력난 가중”

농번기 전남지역 인건비 천정부지 폭등
이개호·서삼석·문금주, 제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영암·무안·신안)·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 중

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 특성

반영 ▲고용 농가의 근무 불가 원인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배정 불균형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 농업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단속 전쟁과 인력난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차별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성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도철 2호선에 발목인 스크론펙 제한속도 완화 6면
박계영의 몸매 좋은 체질음식-‘미역’ 14면
더 큰 꿈을 꾸는 고종욱 “이제 아빠됩니다” 16면

태양·바다·호수를 품은 ‘관광레저, AI산업의 핵심 허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Dynamic

레저, 스포츠
젊음과 역동성

Joy

정원, 리조트, 수변
즐거움과 자유로움

Energy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AI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RE100산업시설

구성지구

정원, 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삼호지구

골프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라남도 JeollaNamdo

솔라시도 SolaSeaDo